

# 다자이문학(太宰文學)에 나타난 순결유린(純潔蹂躪)과 심상(trauma)

야노 다카요시\*  
yano@sejong.ac.kr

## <目次>

- |                              |                |
|------------------------------|----------------|
| 1. 서론                        | 4. 다자이의 심상(心傷) |
| 2. 하쓰요(初代)의 유린(蹂躪)사건         | 5. 결론          |
| 3. 처녀의 순결유린(純潔蹂躪)에 대한 추억(追憶) |                |

主題語: 순결(purity), 유린(trample), 심상(trauma), 신뢰(trust), 심리학(psychology)

## 1. 서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1909-1948)는 일생에 다섯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그 중 세 번은 여성과의 동반자살이었다. 다자이의 생애가 복잡한 여성관계와 자살미수의 반복이었던 것을 보면 그의 생애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본 국어교과서에 실린 『달려라 메로스(走れメロス)』 처럼 인간의 진실한 신뢰를 주제로 하는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무언가 순수함을 찾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까지 어려워했던 것도 바로 순수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왜 남녀문제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도 알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자이가 무사시노(武蔵野)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자이를 치료한 담당의사 나카노 가이치(中野嘉一)는 ‘다자이는 분열질(分裂質)이라는 기질이다. 이런 기질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sup>1)</sup>라고 했고, 시마자키 도시키(島崎敏樹)는 ‘다자이는 소년시절부터 늘 안정감이 결여되어 불안 속에 살았다. 과민한 감수성은 소년시절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었다. 『사양(斜陽)』 이후의 작품을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같은 모티프가 단순하게 반복되어 있고

\*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1) 中野嘉一(1988)『太宰治 -主治醫の記録』寶文館出版, p.184

그전의 작품보다 더욱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다.’<sup>2)</sup>라고 하고 다자이의 성격과 그의 만년의 작품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의학자의 입장에서 다자이의 성격이나 인격을 분석하고 있지만, 정신과의 미야기 오토미(宮城音彌)는 다자이의 진단서를 보고 ‘다자이 천재설을 주창’<sup>3)</sup>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의학자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교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자이의 작품을 보면 1937년 3월에 다자이가 하쓰요와 헤어지고 나서 쓴 『HUMAN LOST』(1937), 『모사(姥捨)』(1938), 『동경팔경(東京八景)』(1941), 그리고 『사양(斜陽)』(1947)과 그의 실제유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실격(人間失格)』(1948)에서 모두 여성의 순결상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수이 요시미(臼井吉見)는 『인간실격』과 처녀작 『추억』사이에는 강한 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 선을 중심으로 다자이 문학은 성립되고 있다.’<sup>4)</sup>라고 했지만, 다자이에게 순결의 문제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자이는 그가 입원 중에 일어난 하쓰요의 부정(不貞)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건은 다자이에게 있어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이는 하쓰요와 헤어지고 재혼하고 나서 『여생도(女生徒)』(1939)와 같은 청순하고 밝은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일견 행복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기에는 또 다시 하쓰요를 추억하는 것 같은 어두운 작품을 쓰게 되고 마지막에 자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세계에 있어서 하쓰요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분석의(精神分析)인 우에무라 히로시(植村浩)는 다자이의 ‘세, 네 번의 자살시도는 모두 하쓰요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났다. 도대체 하쓰요라는 여성은 다자이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다자이의 하쓰요에 대한 “애정”은 모친고착(母親固着)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자이의) 하쓰요에 대한 이상한 집착(執着)은 이해할 수 없다.’<sup>5)</sup>라고 하고 있고 쓰카에쓰 카즈오(塚越和夫)는 ‘하쓰요는 다자이 문학이 확립되고 나서 등장한 여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다자이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연구해야 된다. 과연 하쓰요는 다자이에게 무엇이었는가.’<sup>6)</sup>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하쓰요가 다자이 문학에 미친 영향이나 하쓰요와 다자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쓰요가 예기출신이라는 신분에도 있을 것이다. 소마 쇼이치(相馬正一)는 ‘하쓰요와 다자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sup>7)</sup>라고 했다. 또 다자이의 친한 친구로서 하쓰요를

2)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1970)『太宰治』有精堂, p.230, p.234

3) 中野嘉一(1988) 前掲書, p.52

4)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1970) 前掲書, pp.40-41

5)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2卷』ゆまに書房, p.301, p.304

6) 文學批評の會(編)(1972)『批評と研究 太宰治』芳賀書店, pp.346-347

직접 만나 그녀와 대화해본 적이 있는 아마기시 가이시(山岸外史)는 『인간 다자이 오사무(人間太宰治)』(1974)에서 하쓰요의 말이나 다자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그 역시 그들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 같다.

니시다 마사요시(西田正好)는 ‘다자이의 문학은 그 모두가 “유서(遺書)라고 하는 일련의 작품”이었다.’<sup>8)</sup>고 했고 우에무라 히로시는 ‘다자이는 생애의 어떤 시기마다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작품을 쓰고 있다.’<sup>9)</sup>고 한다. 또 시마자키 도시키(島崎敏樹)는 ‘『추억』 이후 다자이는 유서로서 이것저것 모두 숨김없이 이야기하려고 거의 강박적(強迫的)으로 작품을 썼다.’<sup>10)</sup>고 하여 작가와 작품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사소설(私小說)에 있어서는 그 작가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작가의 인격(personality)이 바로 그 작품내용을 결정하기까지 한다.’<sup>11)</sup>는 견해도 있듯이 다자이와 하쓰요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자이가 유서로 쓴 작품들을 실마리로 등장인물들의 심리분석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은 허구(fiction)라는 일반적 견해도 다자이의 경우는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쓰요의 불륜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작품을 현대의 심리학로 인해 해석함으로써 하쓰요와 다자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심리적 심상(心傷)<sup>12)</sup>에 대해서 밝히려고 한다.

## 2. 하쓰요의 유린(蹂躪)사건

다자이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아내 하쓰요(初代)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다자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알게 된, 같은 고향의 예기(藝妓)출신의 소녀이며 다자이가 아오모리(靑森)에서 처음으로 상경했을 때 그를 따라 상경하여 결혼약속을 하였고, 같은 해에 아오모리에서 임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동경에서 다자이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자이에게 매달려 억지로 아내가 된 여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자이가 그녀와

---

7) 相馬正一(1979)『太宰治』津輕書店, p.49  
8)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2卷』ゆまに書房, p.314  
9) 上掲書, p.304  
10) 上掲書, p.192  
11)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2卷』ゆまに書房, p.146  
12) 심상(trauma)이란 마음 상처를 말하지만, ‘사람의 대처능력 이상의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정신적 외상이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山田和男(2001)『マスコミ精神醫學』星和社, p.84)

결혼약속을 하자마자 다자이가 술집여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실로 볼 때, 그녀와의 결혼이 다자이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자이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은 다자이의 형이 의절(義絶)을 조건으로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다른 가족들도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 젊은 다자이는 불안해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그러므로 그 후의 다자이와 하쓰요의 동거생활이 행복한 것이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또 다자이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좌익운동에 빠져 경찰에게 뒤쫓기는 생활을 했고, 그 후에는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다자이가 하쓰요에게 준 부담 또한 크고, 하쓰요 또한 파란만장한 생활을 다자이와 함께 보내야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자이는 약물중독으로 1936년 10월에 무사시노(武蔵野)병원에 강제적으로 이송되었지만,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감금과 같았고 다자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갖게 되어 분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퇴원하자마자 지인으로부터 그와 하쓰요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

입원 중에 일어난 하쓰요의 실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자이는 『HUMAN LOST』에서 하쓰요의 실수를 다음과 같이 책망한다.

二十三日。「妻をののしる文。」私が君を、どのように、いたはつたか、君は識つてゐるか。どのように、賢明にかばつてやつたか。(中略)君には、ひとりの良人を愛することさへできなかった。かつて君には、一葉の戀文さへ書けなかつた。恥ぢるがいい。女体の不信実行の愛とは、何を意味するか。ああ、君のぼろを見とどけてしまった私の眼を、私自身でくじり取らうとした痛苦の夜夜を、知つてゐるか。(中略)君は、いつたい、誰の嫁さんなんだい。<sup>14)</sup>

(『HUMAN LOST』)

이십삼일. “아내를 욕하는 문장.”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지, 너는 알고 있는가? 어떻게 현명하게 감싸주었는지. (중략)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명의 선인조차 사랑할 수 없었다. 이전에 너는 한 장의 연애편지조차 쓰지 못했다. 부끄러워해라. 여체의 불신실행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아, 너의 비밀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내 눈알을 내 손으로 스스로 도려내려고 한 고통의 매 밤을 (너는) 알고 있는가. (중략) 도대체 너는 누구의 아내냐고?<sup>15)</sup>

13) 다자이는 하쓰요와 결혼하기 위해 장남과 사이에 분가제적(分家除籍)의 각서(覺書)를 써야 했다. 이것은 그에게 상당히 굴욕(屈辱)적인 것이었다. (『一冊の講座』編集部(1983)『一冊の講座 太宰治』有精堂, p.137) 다자이는 잃어버린 생가(生家)와의 관계에 큰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相馬正一(1979)『太宰治』津輕書店, p.52)

14) 太宰治(1989)『太宰治全集 第一卷』筑摩書房, pp.23-30

15) 본고에 나오는 일본문헌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가 한 것이다.

다자이는 주변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쓰요와 결혼했지만 이것은 다자이의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하쓰요의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성격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자이가 소녀시절의 하쓰요를 불쌍하게 여기고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쓰요의 불륜사건은 그 만큼 다자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쓰요는 1931년에 다자이와 동거하고 나서 1936년에 다자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다. 특히 주변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 다자이가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고 나서는 하쓰요 자신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다음은 그 다음 해에 다자이가 쓴 『모사』(1938.9)이다.

ふたり、厳肅に身支度をはじめた。×××××愛撫した妻と、(中略)お互ひ身の結末を死ぬことに依つてつけようと思つた。(中略)死ぬことを企てたというだけで、このひとの世間への申しわけが立つ筈だ。(中略)こんどのことは?(中略)あのことだけは、おれは平気で居られぬ。たまらないのだ。(中略)倫理は、おれは、こらへることができる。感覚が、たまらぬのだ。(中略)言葉のままに信じたひとだ。おまえを非難しようとは思はない。(中略)もういやだ、この女は、おれには重すぎる。(中略)おれは一生、このひとのために、こんな苦勞をしなければ、ならぬのか。いやだ。もういやだ。(中略)(おれは)気持ちがひぢやない。16) (『姥捨』)

두 사람이 엄숙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 (를) 애무한 여자와 (중략) 서로의 잘못에 대한 결말을 죽음으로 지려고 생각했다. (중략) 자살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사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번 일은? (중략) 그것으로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둘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중략) 윤리는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중략)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다. 너를 비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략) 이제 싫대! 이 여자는 나에게 너무 부담이다. (중략) 나는 일생 이 여자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가. 싫대! 이제 싫대!! (중략)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다.

1938년 10월에 발표된 이 작품은 1937년 3월에 퇴원한 다자이가 하쓰요를 데리고 미즈카미(水上)온천에 가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은 사건 바로 후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 자살미수는 하쓰요의 불륜사건에 대해서 선악의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발표는 다자이가 이혼하는 이유를 ‘사회’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변명’인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작품에서도 하쓰요의 불륜이 문제되고 있지만, 그것과 더해져 다자이의 내심(內心)이 토로(吐露)되어 있다. 이때까지 인내하여 왔던 그녀에 대한 불만을 이제 다 숨김없이 털어

16) 太宰治(1989) 前掲書, pp.89-97

놓고 있는 것이다. 하쓰요의 불륜으로 인해 다자이의 분노가 폭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자이가 이때까지 할 수 없이 하쓰요를 감싸주어 온 것이 하쓰요의 배신행위로 인해 이혼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하쓰요의 존재가 다자이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자이는 잘못된 그녀를 바로 버리지는 않았다. 『모사』에서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다. 너를 비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지만, 다자이의 말에 따르면 ‘하쓰요는 “좋은 여자였다.” 그러나 출신의 관계도 있고 “교양이 모자랐다.” “실은 무지였다.”<sup>17)</sup>는 것이다. 이렇게 다자이는 하쓰요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그 만큼 무지(無知)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자이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자이가 『모사』에서 쓴 것처럼 ‘감각의 문제’일 것이다. 다자이는 하쓰요를 용서한다 해도 육체적 ‘감각을 참을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그의 의지를 넘어 그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륜은 남자가 (여성)을 유혹한다.’<sup>19)</sup>고 본다. 그리고 ‘그(남자)들은 그것(여성의 몸)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단지 감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sup>20)</sup>고 밝힌다. 남성인 다자이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욕망과 남성이 여성의 육체의 지배로 인해 얻는 쾌락적 만족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다자이는 다른 남자가 하쓰요의 몸을 소유하고 농락한 사실에 대해 남편으로서 남자의 ‘감각’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감각’은 이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자이의 지인과 하쓰요가 범한 불륜행위는 그들과 인간에 대한 다자이의 신뢰를 유린한 결과가 되었다.

### 3. 처녀의 순결유린(純潔蹂躪)에 대한 추억(追憶)

『추억』에서는 다자이가 소년시절의 첫사랑이었던 하녀에 대한 추억이 나타난다.

みよは、ある下男にたつたいちど汚されたのを、ほかの女中たちに知られて、私のうちにあたたまらなくなつたのだった。男は、他にもいろいろな悪いことをした。<sup>21)</sup> (『思ひ出』)

17) 山岸外史(1974)『人間太宰治』筑摩書房, pp.145-146

18) “윤리는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을 참을 수가 없다.” 이 (다자이의) 말은 다자이의 작품『모사』속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山岸外史(1974)『人間太宰治』筑摩書房, p.147)

19) 릭브라운저/오제은(역)(2009)『이미고 부부관계치료』학지사, p.142

20) 레셀 바노이/황경식 외(역)(2003)『사랑이 없는 성』철학과현실사, p.42

미요는 어떤 하인에게 한 번, 더럽힘을 당했던 것을 다른 하녀가 알게 되어 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다.

미요라는 처녀가 하인 남자에게 더럽힘을 당했던 이야기이다. 이 문장에는 남자에게 능욕을 당한 소녀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어린 시절의 주인공의 첫사랑은 한 남자의 소녀에 대한 유린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2)</sup> 미요가 당시 다자이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 ‘도키’를 모델로 한 것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sup>23)</sup> 그녀가 집을 떠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sup>24)</sup> 다자이가 유서로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해서 쓴 작품에서 그의 첫사랑이 유린된 것으로 묘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937년 3월에 다자이는 하쓰요와 헤어지고 같은 해에 지인의 소개로 처녀 이시하라 미치코(石原美知子)와 재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여생도(女生徒)』(1938)는 더러움을 모르는 처녀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이며 여기서 다자이의 마음이 이미 정리되고 명랑해진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다자이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일일이 쓰기 시작한다.

다음은 그 다음 해인 1941년에 발표된 『동경팔경』이다.

Hとは、私が高等学校へはいったとしの初秋に知り合って、それから三年間あそんだ。無心の芸妓である。(中略)肉体的の關係は、そのとき迄いちども無かった。<sup>25)</sup> (『東京八景』)

H와는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초가을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3년간 함께 놀았다. 그녀는 순진한 예기이었다. (중략) (그녀의 남성과의 육체관계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여기서 H라는 사람은 하쓰요(初代)를 가리키고 있다. 위의 이야기는 그녀가 예기(藝妓)시대의 소녀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자이는 당시 일본 풍습에 따라 이미 청년시절부터 유녀를

21) 太宰治(1989) 前掲書, p.48  
22) 다자이의 ‘사랑하는 여성’ 속에 있는 ‘더럽히는 것’이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작품『추억』의 미요도 그렇다. ‘사랑하는 여성’이 ‘더럽히는 것’이라는 불안이 다자이를 붙잡고 있다.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8巻』ゆまに書房, pp.132-134)  
23) 미요는 다자이의 첫사랑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미요의 모델은 미야코시 도키(宮越トキ)라고 한다. 다자이가 생애 추구하는 운명이 된 여성상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봐야 될 것이다.((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8巻』ゆまに書房, p.132)  
24) 도키는 다자이와의 관계를 거부하여 스스로 집을 떠났다. (徐載坤(2001)『太宰治『思ひ出』考』『일본어문학』제17집 일본어문학회, p.118)  
25) 太宰治 外(1986)『昭和文學全集 第5巻』小學館, p.839

했다고 한다. 하쓰요와 만난 것도 그런 유녀들과의 교류 속에서도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미성년의 예기였던 하쓰요와는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노는 상대와 결혼할 상대를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6)</sup>

その後は、女から、何の便りもなかった。女は、ひどく安心してしまっているらしかった。私には、それが不平であった。(中略)銀座裏のバアの女が、私を好いた。(中略)不潔な時期だ。私は、この女を誘って一緒に鎌倉の海へはいった。(中略)Hとの事で、母にも、兄にも、叔母にも呆れ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自覚が、私の投身の最も直接な一因であった。女は死んで、私は生きた。<sup>27)</sup> (『東京八景』)

그 후에 여자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여자는 아주 안심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나에게 는 그것이 불만이었다. (중략) 긴자 뒷골목의 한 술집여자가 나를 좋아했다. (중략) 나의 불결한 시기였다. 나는 이 여자에게 권해서 함께 가마쿠라의 바다에서 자살하려고 했다. (중략) H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머니도 형도 고모도 다 나를 질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 자각이 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자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여기서 처음에 나타난 ‘여자’란 H, 즉 하쓰요를 가리키고 있다. 하쓰요는 다자이에 의해 유녀의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문가인 다자이의 아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운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자이의 형의 결혼 승낙으로 인해 그녀는 ‘안심’하고 행복감에 차 있었다. 그것에 비해 다자이는 집안에서 의절이라는 충격적인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 이러한 다자이의 사정을 모르고 혼자 고향에서 안도하고 있는 하쓰요에게 다자이는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소마는 그때의 다자이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우연히 만난 여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sup>28)</sup>고 분석한다.

私は二十四歳になっていた。(中略)或る日の事、同じ高等學校を出た經濟學部の一學生から、いやな話を聞かされた。煮え湯を飲むような氣がした。まさか、と思った。知らせてくれた學生を、かえって憎んだ。(中略)私は、Hを信じられなくなったのである。その夜、とうとう吐き出させた。學生から聞かされた事は、すべて本当であった。もっと、ひどかった。(中

26) 다이쇼(大正)시대에서 쇼와(昭和)시대에 걸쳐서 일본에서도 현모양처(賢母良妻) 사상이 여성의 도덕이 되었다. 그리고 미혼여성의 순결과 아내의 정조가 일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인 처녀와 순결을 지켜야 했다.

27) 太宰治(1986) 前掲書, pp.839-840

28) 相馬正一(1979) 前掲書, p.63



略)こいつの為に生きていたのだ。私は女を、無垢のままに救ったとばかり思っていたのである。(中略) 僕の所へ来る迄は守りとおす事が出来たのだと。(中略)私は、いやになった。29)

(『東京八景』)

(그때) 나는 24세가 되어 있었다. (중략) 어느 날의 일이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경제학부의 한 학생으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끓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설마 라고 귀를 의심했다. 알려진 학생을 오히려 미워했다. 나는 H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 날 밤에 드디어 고백하게 했다. 학생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다 정말이었다. 더 나빴다. (나는)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를 순결한 상태에서 (만나서) 무구한 상태로 구해주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나와 만날 때까지 몸을 지키고 왔다고 .... (중략) 나는 싫어졌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다자이가 하쓰요의 과거에 대해서 쓴 내용이다. 이 문장에 따르면 하쓰요의 첫 경험은 다자이의 고등학교시절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 예기였다는 신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젊은 다자이는 당시 그녀를 순결한 처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하쓰요의 소녀시절 때의 순결문제가 등장한다. 당시 다자이에게 하쓰요는 순결한 처녀로 다자이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여자를 무구(순결)한 상태에서 구해주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자이가 하쓰요를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감정은 『추억』에서 다자이가 소년시절에 첫사랑 처녀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과도 유사하다.<sup>30)</sup>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약자(弱者)에 대한 동정심이고 이러한 불쌍한 처녀가 주위사람들로 인해 이용되고 치욕(恥辱)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서 막으려는 소년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자이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좌익운동에 빠졌지만, 지주계급 출신인 그가 사회적 약자를 감싸주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일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다자이의 심상(心傷)

다자이의 주치의이었던 나카노 가이치(中野嘉一)는 ‘다자이 문학은 작품과 작가가 밀착해 있고 자서전 소설적 경향이 현저하다.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이 다자이인 것을 그대로 느끼게

29) 太宰治 外(1986) 前掲書, p.841

30) 시마자키 도시키는 ‘하쓰요의 사건은 미요에 대한 공상 속에서의 연애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2卷』ゆまに書房, p.160)

하는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sup>31)</sup>고 했다. 『인간실격(人間失格)』은 다자이가 마지막의 유서로 쓴 작품이며 죽음을 눈앞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문장 하나하나는 그저 만든 이야기라고 할 수 없으며 그렇게 써야만했던 그의 심경과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다음은 『인간실격』의 일부이다.

しかし、おそろしいはずの「世間」は、自分に何の危害も加えませんでしたが、また自分も「世間」に対して何の辨明もしませんでした。(中略)自分は、世の中に対して、次第に用心しなくなりました。世の中というところは、そんなに、おそろしいところではな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sup>32)</sup> (『人間失格』)

그러나 무서운 ‘세상은 나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다자이의 어린 시절이 묘사되어 있다. 작품에 따르면 다자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과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카노 카이치(中野嘉一)는 ‘다자이의 기질에 자학(自虐), 자조(自嘲), 자기분열적(自己分裂的) 자기회의적(自己懷疑的) 요소가 있다.’<sup>33)</sup>라고 했고, 시마자키 토시키(島崎敏樹)는 ‘다자이의 작품에는 대립적인 여러 성격경향이 있고, 이것이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34)</sup>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어린 시절에 정신적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다. 심리학에 따르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다. 모든 관계 속으로 소외감과 단절감이 침투해 들어온다.’<sup>35)</sup>고 한다. 즉 ‘외상 경험은 냉소, 원한, 불신, 소외감, 미움, 복수심, 시기저하, 신념의 포기, 희망의 상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sup>36)</sup>는 것이다. 이미 논한 것처럼 다자이는 어린 시절에 첫사랑의 하녀 도키가 집을 떠난다는 슬픈 경험을 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자이가 그린 자신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외상을 경험한 결과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煙草屋の十七、八の娘でした。ヨシちゃんと言い、色の白い、八重歯のある子でした。(中

31) 中野嘉一(1988) 前掲書, p.110

32) 太宰治(2001)『人間失格』角川書店, pp.103-104

33) 中野嘉一(1988) 前掲書, p.184

34)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1970) 前掲書, p.234

35) 주디스 허먼/최현정(역)(2007)『트라우마』플래닛, p.98

36) Jan G·Allen/권정혜(역)(2010)『트라우마의 치유』학지사, p.25

略)「してよ。」ちっとも悪びれず下唇を突き出すのです。(中略)しかし、ヨシちゃんの表情には、あきらかにだれにも汚されていない処女のほいがしていました。(中略)「あら、いやだ。酔った振りなんかして。」(中略)てんで疑おうとしないのです。(中略)薄暗い店の中に座って微笑しているヨシちゃんの白い顔、ああ、よごれを知らぬヴァジニティは尊いものだ、自分は今まで、(中略)生涯に一度でいい、処女性の美しさとは、(中略)やはりこの世の中に生きて在るものだ。37) (『人間失格』)

담배 가게에 있는 나이가 16이나 17세 정도의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은 요시씨라고 하고 피부가 하얗고 댕기가 있는 소녀이었습니다. “해주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랫입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씨의 표정에는 분명히 아무도 더럽힌 적이 없는 처녀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마, 싫어요 술에 취하는 체하고...” 전혀 남을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흰 얼굴, 아아, 더러움을 모르는 처녀의 순결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좋다. 처녀의 순결이란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주인공이 처녀를 만났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나타난 아가씨는 순결한 처녀이었다. 주인공은 세상에 순결한 처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인간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녀의 순결성에 감동한 주인공은 그녀와 결혼하지만, 여성은 멀지 않아 불의의 치욕을 당하게 된다.

「見ろ!」(中略) 二匹の動物がいました。(中略) すべてに自信を失い、いよいよ、ひとを底知れず疑い、この世の営みに対するいっさいの期待、よろこび、共鳴などから永遠に離れるようになりまして。実に、それは自分の生涯において、決定的な事件でした。自分は、まっこうから眉間を割られ、さうしてそれ以来その傷は、どんな人間にでも接近する毎に痛むのでした。(中略)おいおい声を放って泣きました。いくらでも、いくらでも泣けるのでした。いつの間にか、背後に、ヨシ子が、そら豆を山盛りにしたお皿を持ってぼんやり立っていました。「何にも、しないからって言って」(中略)「お前は、ひとを疑う事を知らなかったんだ。」(中略)「信頼は罪なりや?」38) (『人間失格』)

“그것 봐!”(중략) 두 마리 동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을 잃고 더욱더 사람을 한계 없이 의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 기쁨, 공감 등과 영원히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정면으로부터 미간에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그 때부터 그 상처는 어떤 사람과 만나도 사람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37) 太宰治(2001) 前掲書, pp.109-112

38) 太宰治(2001) 前掲書, p.125

영영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배후에 요시코가 접시에 잠두콩을 수북이 담고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것이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죄일까요?”

여기서는 주인공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는 참혹한 능욕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의 마음을 열리게 한 것은 남을 속이지 않았던 처녀의 무구(無垢)이었으며 청순(淸純)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었던 인간에 대한 신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다자이 자신을, 요시코는 하쓰요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요시코는 청결(淸潔)하고 무저항의 피해자로 묘사되어 있다. 위의 『HUMAN LOST』나 『모사(姥捨)』의 ‘아내’나 『동경팔경(東京八景)』의 H와는 많이 다르다. 『인간실격』에서의 아내 요시코는 남자를 의심할 줄 몰랐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소마 쇼이치(相馬正一)는 ‘과실을 범한 K(남자)와 하쓰요의 심경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K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불균형 상태에 있었고 하쓰요 또한 다자이를 잃게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붕괴를 면할 수 없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sup>39)</sup>고 한다. 심리학에 따르면 ‘고독감과 불안과 의존심이 여성을 성충동에 이끌리게 한다. 고독감이나 불안감에 견디지 못하는 여성은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타인과의 유대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sup>40)</sup>고 한다. 고독감과 불안감에 빠져 있던 하쓰요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이미 논한 것처럼 1930년 10월, 다자이가 하쓰요를 동경에 부르고 나서 하쓰요에게 있어서도 격동의 매일이었다. 하쓰요는 다자이의 형의 지시에 따라 다시 아오모리에 들어가야 했고 그 한 달 후인 11월에 다자이는 다른 여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또 1935년 3월, 다자이는 신문사 입사시험에 떨어진 후 또 자살미수를 했고, 그 한 달 후에는 심한 맹장염과 복막염(膈膜炎) 때문에 죽을 뻔 했다. 다자이는 그때부터 피비나르 약물중독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36년 10월에 다자이는 약물중독치료 때문에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되었던 것이다.

‘다자이를 걱정하는 하쓰요는 매일 병원에 와있었다. 면회사절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병원 주변을 돌고 있으면 혹시 다자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sup>41)</sup>고 당시 담당의사가 말한 것처럼 하쓰요는 매일 다자이의 병원을 찾아왔다가 그때

39) 相馬正一(1979) 前掲書, p.107

40) 我妻洋(1985) 『性の實驗』 文藝春秋, pp.60-61

41) 中野嘉一(1988) 前掲書, p.110

로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쓰요가 실수한 것은 그렇게 평소처럼 다자이를 찾아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다자이의 지인을 문병했을 때 일이었다.

심리학에 따르면 ‘불륜은 채워져야 할 곳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따뜻함을 제공해주면 외로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접촉을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여성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취약하다.’<sup>42)</sup>고 한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것’<sup>43)</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의뢰하는 사람이 없는 하쓰요가 다자이의 안부도 알지 못한 채 쓸쓸하게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다자이의 지인을 위문하게 된 것은 누군가와 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쓰요도 결혼 후에 행복은커녕, 거센 파도에 시달리는 것처럼 다자이와 함께 삶과 죽음의 사이를 왕래하는 것 같은 생활에 쫓기게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자이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고, 하쓰요는 불륜을 범한 뒤였다는 것이다. ‘불륜은 안전하고 열정적인 부부관계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불륜의 시작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알아채기 시작하면 서부터 시작된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접촉을 통해 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이 있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sup>44)</sup>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외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유대감 때문이다. 유대감이 필요한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다. 여성은 외로운 게 두려워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성은) 외로우면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외도까지 하는 일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sup>45)</sup>는 것은 하쓰요의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쓰요의 실수의 원인은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실격』에서는 왜 아내의 무지(無知)와 신뢰(信賴)가 강조되어 있는가? 『동경광경』에 따르면 하쓰요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다자이가 24세 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그것이다. 거기서 ‘나는 H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자이의 하쓰요에 대한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하쓰요의 사건은 그녀에 대한 의심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쓰요에게 음분(淫奔)이라는 각인을 찍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자이가 『모사(姥捨)』에서 ‘나는 일생,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싫다! 이제 싫다!!’라고 절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2) 릭브라운저(2009) 前掲書, pp.132-139

43) 게르트 쟈어(2009)『불륜의 심리학(Schatten Liebe)』소담출판사, p.181

44) 릭브라운저(2009) 前掲書, p.132, p.137

45) 신디 메스틴, 데이비드 버스/정병성(역)(2009)『Why women have sex』사이언스북스, p.360, p.359

즉 ‘상대(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다. 너를 비난하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쓰요의 무지와 신뢰를 인정하고 그녀를 감싸주면서도 ‘이제 이 여자는 나에게서 너무 부담이다.’라는 말에는 다자이의 동정심과 윤리관 사이의 갈등이 보인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감싸주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실격』에서 주인공은 아내의 무지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その妻は、その所有している稀な美質に依って犯されたのです。しかも、その美質は、夫のかねてあこがれの、無垢の信頼心というたまらなく可憐なものなのでした。無垢の信頼心は、罪なりや。46) (『人間失格』)

그 아내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드문 아름다운 성질에 의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성질은 남편이 전부터 동경한 무구의 신뢰감 이라는 아주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무구의 신뢰감은 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전부터 동경한 무구의 신뢰감’이란 처녀의 청순, 즉 순결을 의미하지만, 이는 동시에 남자에 대한 무지와 무방비를 의미한다. 『동경팔경』에서 ‘나는 여자를 무구의 상태에서 구했다.’는 것은 처녀의 순결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아내의 ‘무구’는 여자의 순결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무도 더럽힌 적이 없는 처녀’와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다자이는 전부터 순결한 처녀를 동경하고 있었지만 그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녀성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 처녀성은 여자에게 국한된 개념이다. 여자의 처녀성이 남자의 동정보다 중요하다.’47)는 것은 근대이후의 일본에서도 이미 사회통념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자이에 있어서도 큰 윤리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논한 것처럼 심리학에 따르면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한 여성을 소유했다는 자기애적 만족’48)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여성이 ‘처음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49) 즉 남자는 육체적 ‘감각’을 얻기 위해 여성을 유혹하지만, 여성은 연대라는 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유혹에 끌리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50)이기 때문이다.

46) 太宰治(2001) 前掲書, p.127

47) 풀블룸/문희경(역)(2010)『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살림, pp.122-123

48) Otto F. Kernberg/윤순임(역)(1995)『남녀관계의 사랑과 공격성』학지사, p.125

49) 릭브라운저(2009) 前掲書, p.132

50) 루안 브리젠딘/임옥희(역)(2007)『여자의 뇌, 여자의 발전』리더스북, p.143

그러므로 다자이는 ‘감각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고뇌하고 있지만, 하쓰요는 감정(感情) 때문에 실수한 것이며 육체적 ‘감각’ 때문에 외도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우 ‘불안이나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혼외성교를 해버리는’<sup>51)</sup> 것이며 ‘여성의 성행동은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성적 흥미하고 확실히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sup>52)</sup>는 것이다.

『인간실격』 탈고 5개월 전에 발행된 『사양(斜陽)』(1947)에서도 순결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どうしても、もう、とても、生きておられないような心細さ。これが、あの、不安、とかい  
う感情なのであろうか、(中略)私はいま、戀一つにすがらなければ、生きて行けないのだ。(中  
略)このひとにだけは、私の戀も、奇妙にうしろめたく思われた。(中略)「朝ですわ」弟の直治  
は、その朝に自殺していた。(中略)

(直治の遺書)

僕に、一つ、秘密があるんです。(中略)僕は、その日のその時の、そのひとの瞳に、くるし  
い戀をしちゃたのです。(中略)僕には希望の地盤が無いんです。<sup>53)</sup> (『斜陽』)

어떻게 해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허전함. 이것이 저 불안이라는 감정인가,  
지금 나는 남녀사랑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게는 내 사랑도 기묘하게  
양심에 쪼리지는 것처럼 느꼈다. “아침이에요.” 동생 나오지는 그 날 아침에 자살했다.

(나오지의 유서)

나에게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날 그 때, 그 사람의 눈동자에 괴로운 짝사랑을 해버렸습  
니다. 나에게는 희망의 기반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유부남과 외도하지만, 그 간음(姦淫)행위의 대가는 남동생의 죽음이었다. 귀족출신의 이 여성은 일본의 근대화로 인해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살 길을 잃었다. 그녀와 남동생은 무너진 귀족가문 출신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쇠퇴의 일로를 더듬어 가고 있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녀는 결국 불륜을 통해 살 것을 결심한다. ‘관계가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립적인 인격(a separate person)이기를 포기한다.’<sup>54)</sup>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외도한 그 날에 그녀는 남동생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자살의 이유는 남의 부인을 정신적으로 사랑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누이가 외로움을 이기지

51) 我妻洋(1985) 前掲書, p.112  
52) 新井康充(1986)『男の脳・女の脳』三笠書房, p.217  
53) 太宰治(2006)『斜陽』新潮社, pp.66-198  
54) 레셀 바노이(2003) 前掲書, p.57

못해 불륜에 빠져 있을 때 남동생은 정신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이는 자신의 죄가 동생을 죽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양』의 나오지는 다자이를 상징한 것이기도 한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에 ‘희망의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려는 의욕을 가지지 못했다.

시마자키 도시키(島崎敏樹)는 ‘다자이는 만년에 『사양』, 『인간실격』처럼 자신의 삶을 묘사했지만 이 자기표현은 초기의 작품인 『추억』에 직결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사상적 발전이 없다.’<sup>55)</sup>라고 했다. 그러나 초기 작품과 죽기 전의 작품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그의 마음상태가 똑같기 때문이다. 다자이의 소원은 처녀의 순결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그의 소원에 대한 유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하라 노부오(笠原伸夫)는 ‘다자이에 있어서 에로스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상처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출발한 것 같다. 상처 받은 여자, 더럽혀진 여자에 의해 그의 섬세한 신경은 지켜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56)</sup>고 하지만, 다자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련한 처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런 피해 여성을 감싸주려고 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상 사건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연결을 부수고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sup>57)</sup> 그러므로 다자이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잊지 못한 것은 순결유린에 대한 마음의 상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신뢰를 주제로 하면서 성적 유린에 대한 여러 작품을 쓴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잊지 못한 심상(trauma)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intrusion)하는 것, 이것이 외상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주요한 문제’<sup>58)</sup>이기 때문이다. 다자이가 받은 마음 상처는 그가 믿었던 처녀의 순결에 대한 유린과 이로 인한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므로 순결과 신뢰는 그의 문학의 주제인 동시에 그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다자이 문학에 일관되어 있는 순결유린이 하쓰요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고

55) 山内祥史(1993)『太宰治論集 同時代編 第6卷』ゆまに書房, p.197

56) 『一冊の講座』編集部(1983)『一冊の講座 太宰治』有精堂, p.13

57) 주디스 허먼/최현정(역)(2007)『트라우마』플래닛, p.97, p.103

58) Jan G·Allen(2010) 前掲書, p.25



작품에 나타난 여성과 그녀에 대한 주인공의 심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았다. 이제까지 다자이의 성격이나 인격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연구나 정신분석학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다자이와 하쓰요의 관계에 한해서 순결과 유린이라는 관점에서 다자이의 심상(trauma)을 해명하려는 연구는 없었다.

다자이는 1937년에 재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지 않아 그의 마음은 다시 과거로 향한다. 1941년에는 『동경팔경』, 1947년에는 『사양』, 1948년에는 『인간실격』에 이르지만, 이들 작품은 모두 처녀의 순결상실이 묘사되어 있다. 다자이가 반복해서 처녀의 순결유린을 작품에 쓴 것은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자이는 어린 시절에 그가 동경한 처녀가 그를 떠나는 경험을 했다. 이와 같은 처녀의 상실사건은 하쓰요의 실수에 대한 기억과 함께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침습(intrusion)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녀의 무구(無垢)가 왜 유린의 원인이 되는가.’하는 문제, 즉 ‘사람에 대한 신뢰가 능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유린으로 인한 ‘감각’의 문제와 함께 그를 일생 고민하게 했다.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불륜의 동기는 다르다. 남성은 ‘한 여성을 소유했다는 자기애적 만족’(Otto F. Kernberg:1995 125)을 위해 ‘단지 감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레셀 바노이:2003 42) ‘(여성)을 유혹한다.’(릭프라운저:2009 142) 그러나 여성의 경우 ‘외도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유대감 때문이다. 외로우면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외도까지 하는 일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신디 메스턴, 데이비드 버스:2009 360, 359)는 것이다. 즉 남자는 육체적 ‘감각’을 얻기 위해 여성을 유혹하지만, 여성은 유대라는 ‘감정’ 때문에 유혹에 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자이는 하쓰요의 실수에 대해서 육체적 ‘감각’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녀가 불륜행위를 한 것은 남과의 유대를 원하며 신뢰하는 여성의 성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녀의 순결이 유린되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하는 것이 다자이의 작품에 일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결유린과 그로 인한 신뢰의 배신이 다자이의 심상(trauma)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다자이의 추억 속에 나타나 반복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徐載坤(2001)「太宰治『思ひ出』考」『일본어문학』제17집 일본어문학회  
게르티 쟁어(2009)『불륜의 심리학(Schatten Liebe)』소담출판사

- 신디 매스틴, 데이비드 버스/정병성(역)(2009)『Why women have sex』사이언스북스  
주디스 허먼/최현정(역)(2007)『트라우마』플래닛  
루안 브리첸던/임옥희(역)(2007)『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리더스북  
릭브라운저/오제은(역)(2009)『이미고 부부관계치료』학지사  
레셀 바노이/황경식 외(역)(2003)『사랑이 없는 성』철학과현실사  
폴블룸/문희경(2010)『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살림  
Otto F·Kernberg/윤순임(역)(1995)『남녀관계의 사랑과 공격성』학지사  
Jan G·Allen/권정혜(역)(2010)『트라우마의 치유』학지사  
我妻洋(1985)『性の實驗』文藝春秋  
『一冊の講座』編集部(1983)『一冊の講座 太宰治』有精堂  
相馬正一(1979)『太宰治』津輕書店  
太宰治 外(1986)『昭和文學全集 第5卷』小學館  
太宰治(1989)『太宰治全集 第一卷』筑摩書房  
太宰治(2001)『人間失格』角川書店  
太宰治(2006)『斜陽』新潮社  
中野嘉一(1988)『太宰治 -主治醫の記録』寶文館出版  
新井康充(1986)『男の腦・女の腦』三笠書房  
文學批評の會(編)(1972)『批評と研究 太宰治』芳賀書店  
山内祥史(1993)『太宰治論集 同時代編 第6卷』ゆまに書房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2卷』ゆまに書房  
山内祥史(1994)『太宰治論集 作家論編 第8卷』ゆまに書房  
山田和男(2001)『マスコミ精神醫學』星和社  
山岸外史(1974)『人間太宰治』筑摩書房

---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

<要旨>

다자이문학(太宰文學)에 나타난 순결유린(純潔蹂躪)과 심상(trauma)

본고에서는 하쓰요의 불륜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작품을 정신의학에 속하는 현대 심리학로 인해 해석함으로써 하쓰요와 다자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심리적 심상(心傷)에 대해서 밝히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자이의 작품을 통해 다자이의 성격이나 인격(personality)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하쓰요에 초점을 맞추어 하쓰요와 다자이의 관계에 한해서 현대 심리학적 해석을 적용하고 다자이의 심상(trauma)을 해명하려는 연구는 없었다.

처녀의 순결이 유린되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하는 것이 다자이의 작품에 일관되어 있다. 다자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동경한 처녀가 그를 떠나는 경험을 했다. 이와 같은 처녀의 상실사건은 하쓰요의 실수에 대한 기억과 함께 끊임없이 그를 침습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순결유린과 그로 인한 신뢰의 배신이 다자이의 심상(trauma)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다자이의 추억 속에 나타나 반복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to the Sexual Insult and  
*Trauma* in the Literature of Dazai

This is the study to analyze the sexual insult to virgin that appear in the literature of Dazai. Purity and fall is written in the literature of Dazai repeatedly in all his works. Dazai had sad memory that a girl whom he had loved had left him in his childhood. After that he met one girl in his youth and married her. But he knew that she was not pure. When she committed sexual sin after his marriage he tried to die with her. In this way his life was repeats of suicide. Some alienist pointed out his mental problem, but in this study we analyze Dazai's mental disorder as *trauma*. Dazai tried to defend weak person from his childhood. And he married Hatzuyo and tried to keep her as his wife. But when she was insulted again Dazai's trauma appeared. His anxiety, distrust to human, and loneliness comes from his such a sad experiences. We can say that his life should be to recover his hurt mind but his life was still painful. He wrote his painful memory in his last work. it is "disqualification of human". We can say that insult of the virgin became distrust to human and it became Dazai's trauma. He searched for purity and trust but his reality was dishonor and betrayal. Dazai's trust to virgin was chaste but this trust was betrayed by insult. We can say that this kind of experiences made Dazai so sympathetic to woman but *trauma* made his character and life so miserable.